

전세사기 피해 신청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경기도가 전세 피해 신속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특별법상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 지사로 위임하는 등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입차인이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피해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20일 내로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와 ▲무자본 캡투기로

도, 6월부터 ‘주거 안정 특별법’ 시행

지원센터 분할 개편으로 업무력 ↑

자체적인 조사, 생계비·이주비 제공

내달 국토부 지원단에 직원 파견도

“도민 주거 안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인한 강동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등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도는 원활한 결정을 위해 다음 달 1일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직원 1명을 파견한다.

또 원활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한다.

지원팀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수행한다.

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낮 12시~오후 1시 제외) 전세피해지원센터(070-7720-4870~2)로 하면 된다. 이유림 기자

7일 지방도 문산~내포 1단계 구간 개통

〈35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완공해 낮 12시부터

213억 사업비 투입해 5년 만에 마무리

경기도는 파주시 문산을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1) 도로 확포장공사를 완공, 오는 7일 낮 12시에 완전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문산~내포(1) 도로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0-10번지 임월교 교차로와 내포리 454-2번지 방촌교차로를 연결하는 길이 820m, 폭 20~23.5m 도로다.

도는 총 2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임월교를 포함한 기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2019년 착공해 5년 만에 완공했다.

주요 시설물은 신규 임월교 교량 1개소와 기존 임월교 연장 1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개통으로 문산 시가지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월릉 일반산업단지 접근이 수월해짐에 따라 평일 출퇴근이나 물류 이동의 상습 지·정체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산~내포(1)와 이어진 문산~내포(2) 도로 확포장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위치도, 경기도 제공

완전 개통 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자유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인근지역 교통난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교홍 도 건설본부장은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시설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하고 쾌속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청년에게 기회를…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도, 오는 30일까지 2분기 접수 진행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할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1999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 입 후 6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청년
기본소득 포
스터,
경기도 제공



도는 신청자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 수령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즉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 제한된다. 이유림 기자

6월 맞이 ‘나들이 이벤트’

배달특급, 픽업 할인 쿠폰 제공

경기도주식회사는 1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6월 나들이 픽업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이벤트는 ‘지원한 픽업쿠폰 1000원’, ‘든든한 픽업쿠폰 2000원’ 등 2가지 쿠폰을 배달특급 전체 회원에게 제공한다.

지원한 픽업쿠폰은 최소 주문 금액 7000원 이상, 든든한 픽업쿠폰은 1만 2000원 이상 주문에 사용할 수 있다.

배달특급은 아울러 일부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호국보훈의 달’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가평, 파주, 연천, 용인, 포천, 과천, 안양, 광명, 광주, 부천, 양주, 양평, 의정부, 서울 성동 등 14개 지역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전체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태현 기자

북부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857.4kW로 확대

도, RE100 실천 위해 내년까지 추진

옥상 등 5곳에 설비 773kW 추가 설치

경기도 북부청사는 경기 RE100 비전을 실천하고자 현재 84.4kW 수준인 청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내년까지 857.4kW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원 옥상, 전기차 주차장, 바이오 주차장, 본관-별관 연결통로 등 5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773kW를 추가 설치한다.

발전설비가 추가 설치되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연간 전력 에너지 생산량은 현재 106MWh에서 1077MWh로 늘어난다.

이는 북부청사 내 연간 전력 에너지 사용량 3128MWh의 34.4% 수준이다.

이번 설치되는 부지 활용성, 기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자가 설치(442kW)와 부지 임대를 통한 햇빛발전소 운영 부지로 임대(331kW)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가 설치로 생산되는 전기는 청사에서 직접 사용하고 햇빛발전소 부지 임대를 통해 발전된 전력은 글로벌 RE100 이행이 시급한 도

내 중소기업에 RE100 플랫폼을 제공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인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지역주민이 햇빛발전소 사업에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 투자하고 나온 수익을 공유한다.

여기서 발생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기업에 제공하는 경기도형 RE100 달성 사업이다.

이밖에 북부청사는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하고 20년 경과된 노후 빙축열 철거, 터보냉동기·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등 저탄소 녹색 청사 운영에 힘쓰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는 기후변화의 피할 수 없는 문제를 기회로 삼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 RE100 비전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림 기자

■ 본사 인사

◇ 신규

▲ 정재경

■ 정치부 차장

(6월 1일부)

“
경기도의 참 언론사인 경기신문에서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는 경기신문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메인홈페이지(www.kgnews.co.kr) 우측상단에 제보·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다 더 빠른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제보전화 | | 031)268-8114, 031)257-4459 |

